

학사관리 정상화 '살얼음판'

개학 일주일만에 학생 코로나19 확진 잇따라 등교수업 불안감에 원격수업 전환학교 늘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제주도내 원격수업 전환 학교와 학년이 지속 늘고 있다. 개학 일주일 만에 학교 현장 곳곳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등이 발생하면서 학교는 학사관리 및 방역에 비상이 걸렸고, 등교수업에 따른 감염 우려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관련해 제주도교육청은 학생들의 학습 결손 최소화를 위해 방역당국의 자문을 구해 현재처럼 전체학년이 아닌 학년별 원격수업 전환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10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역학

조사과정에서 접촉자가 신규 확인된 대기고등학교 2·3학년과 제주대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3학년, 오현중 3학년 수업이 이날 원격수업으로 추가 전환됐다.

대기고의 경우 지난 8일부터 3학년을 대상으로 시작된 원격수업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발생한 자가격리자의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지만 9일 신규 코로나19 검사 및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2·3학년 학생이 발생하면서 원격수업이 2학년으로까지 확대됐다.

이에따라 이날 기준 도내 8개교

(중 2, 고 6)가 학생·교사 등의 코로나19 확진 및 자가격리에 따른 원격수업으로 전환 운영하고 있다.

해당학교는 대기고와 제주사대부고, 오현중을 비롯해 기존 전환된 탐라중(전체학년, 8~19)과 오현고(3학년, 8~19일), 제주고(3학년, 9일~), 제주중앙고(2학년, 9일~)와 제주여상(10일 전체학년, 1·2학년 11~19일)이다.

한편 이석문 도교육감은 지난 8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도내 학교들이 원격수업으로 전환하자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들이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가급적 자제하도록 지도하고, 학원도 철저한 방역 및 밀집도 최소화에 노력하도록 협력을 강화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은지기자



미세먼지가 가쁜 풍경... 푸른 도심 위 파란 하늘. 미세먼지가 나뭇잎을 보인 10일 제주 오라동 중산간에서 바라본 시가지가 푸르게 보이는 가운데 미세먼지 띠 위로 파란하늘이 대조를 보이고 있다. 권희만기자

■ 제2공항 예정지 발표 2015년 서귀포 토지거래 분석해보니

매입자 절반 외지인... 거래량도 역대 최대

2014년 2만2473필지 → 2015년 3만2871필지... 1년새 46% ↑

제주 제2공항 예정지가 발표된 2015년 제주지역의 토지거래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서귀포시 지역의 토지를 매입한 이들 중 절반은 거주지가 서울 등 도외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부동산원의 제주지역 토지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제2공항 예정지가 발표된 2015년 도내 토지거래 필지수는 7만3869필지로 전년(5만9367필지) 대비 24.4% 증가했다.

제주시 지역 거래 필지가 4만998필지로 전년(3만6894필지) 대비 11.1% 증가했고, 서귀포시 지역에선 3만2871필지가 거래돼 전년(2만2473필지) 대비 46.3% 늘어나며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토지 거래가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이후 도내 토지 거래량은 ▷2016년 7만1957필지 ▷2017년 6만7095필지 ▷2018년 5만7915필지 ▷2019년 4만2320필지

▷2020년 3만8972필지다.

2011년만 해도 도내 전체 토지거래량이 3만5641필지였고 이 가운데 제주시가 2만4094필지, 서귀포시가 1만1547필지로 서귀포시 지역 거래 필지가 제주시의 절반을 밑돌았음을 감안하면 서귀포시 성산읍이 2공항 예정지로 발표된 후 해당 지역인 성산읍과 표선면 등 서귀포시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토지 거래량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귀포시 토지거래량 증가와 맞물려 제주가 아닌 도외 매입자 수 증가도 두드러졌다. 2015년 서귀포시 지역에서 거래된 토지 3만2871필지 중 매입자 거주지가 도외인인 경우는 1만6116필지(49.0%)로 절반을 차지했다. 같은해 제주도 거래 필지 중 매입자가 외지인인 토지는 1만1401필지로 27.8%였다. 이같은 분위기는 2016년에도 이어져 서귀포시에서 거

래된 3만982필지 중 매입자가 외지인인 토지는 1만4801필지로 47.8%를 차지했다. 제주도 지역에선 4만975필지 중 29.1%(1만1922필지)의 거주지가 도외인이었다.

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 지역 토지 실거래(매매) 건수도 2015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2015년 성산읍에서 실거래된 토지는 4257건으로, 2013년(1614건)과 2014년(2164건)과 비교하면 갑절 이상 증가했다. 2015년 월별 실거래건수는 ▷5월 274건 ▷6월 336건 ▷7월 361건 ▷8월 323건 ▷9월 436건 ▷10월 533건 ▷11월 767건이다. 12월에는 실거래량이 48건으로 감소했는데, 이는 11월 10일 제2공항 예정지 발표와 함께 성산읍 전체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데 따른 영향이다. 2016년과 2017년 성산읍 지역 연간 토지 실거래 건수는 각각 634건, 479건으로 집계됐다. 문미숙기자

유세 중 허위발언 선거법 위반 혐의 송재호 국회의원 내달 7일 결심공판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 갑·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의 과거 영상을 보고 눈을 감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의원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4월 7일 제주도두1동 민속옥일시장에서 유세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요청에 따라 올해 4·3추념식에 참석하고,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약속했다

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재직 기간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않고 무보수로 근무한 것처럼 발언한 혐의도 있다.

당초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송 의원에 대한 '구형'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돌연 검찰 측이 '피고인 신문'을 요청하면서 미뤄졌다.

이로 인해 재판은 검찰 측의 '서증 조사'만 이뤄졌는데, 송 의원 혐의 관련 유세·토론회 영상과 각종 언론

보도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송 의원은 영상을 시청하며 자꾸 눈을 감거나, 손으로 눈을 가리는 등 괴로운 기색이 역력했다.

다음 재판에서 이뤄질 피고인 신문에 대한 신경전도 있었다. 검찰 측은 기존 주장을 다시 확인하겠다며 1시간의 신문 시간을 요청한 반면 변호인 측은 "이미 몇 시간에 걸쳐 자유롭게 조사를 해놓고, 이제와서 다시 신문을 한다는 것은 망신주기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재판부는 다음달 7일 오후 3시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갈등이 있었던 피고인 신문에 대해서는 검찰 측이 요구한 시간인 1시간을 30분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하고자 중재했다. 송은범기자

제주외고 일반고 전환 공론화 재개

교육공론화위 2기 어제 첫회의 열고 본격 가동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 2기가 출범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새로 구성된 위원회가 제2호 의제인 '제주외국어고등학교의 일반고 전환 모형'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재개하기로 하면서 지난해 잠정 연기된 도민참여단 토론회 개최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5회 의실에서 새로 구성된 2기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 첫 회의가 열렸다.

공론화위원회는 조례에 따라 부교육감이 위원장을 맡게 되며 교육감 위촉 위원 6명, 도민으로 구성된 공모 위촉 위원 8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2기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을 제외하고 13명의 위원이 연인 위촉됐으며 1명의 위원이 신규 위촉됐다.

이날 회의에서 공론화위원회는 '제주외고 일반고 전환 모형'을 지속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지난해 추

진된 도민 사전 설문조사, 전문가 토론회, 도민참여단 토론회 진행 상황 등을 공유했다. 또 지난해 연기된 도민참여단 토론회 운영의 시기, 장소, 방법 등의 추후 세부 일정은 이달 말 공론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공론화위원회 관계자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마련해 공론화를 진행할 것"이라며 "도민의 교육행정에 참여를 통한 속의민주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공론화위원회의 최종 권고안은 올 상반기 내 이석문 교육감에게 제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은지기자

초등 제자 폭행혐의 테니스 지도자 입건

테니스 지도자가 초등 제자의 코베를 함몰시키는 등 지속적인 폭행을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경찰청은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지도하는 초등생 5명에게 지속적으로 폭언·폭행을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나이는 만 7세부터 10세까지로 전해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라켓으로 테니스공을 쳐 아이들의 얼굴과 몸

을 맞았는데, 한 학생은 얼굴을 강타당해 코 연골이 함몰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귀를 잡아 당겼다가 학생의 귀가 찢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이 밖에도 학부모들이 폭행 자체를 요청하면 되레 아이들에게 무리한 훈련을 강요하는 등의 보복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은범기자 seb119@ihalla.com

**콘크리트 먼처리
콘크리트 폴리싱
세라믹 폴리싱
테라조 연마 광택**

에폭시/우레탄 도막제거

표창장
한국환경위생협동조합 이사장 직책회
귀하는 자조자립협회의 활동조항 실천을 표반적으로 실천하여 수상공인 활동조항 실천화 및 경제적 제고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주변미생연구원 박영

제주대 중앙도서관 도끼다시바닥

세외카페
유도농협하나로
스트라이크볼경기장
함덕 유드림 식자재마트

**아직도 공장, 주차장, 사무실, 쇼핑센터, 물류창고 등
바닥에 에폭시나 타제품으로 시공하고 계십니까?**

**선진국형 친환경 마감공법인
콘크리트 폴리싱 시공으로 한 번에
영구적 바닥 해결!**

**강한 내구성, 친환경 시공, 쾌적한 표면, 작업환경의 개선
저렴하고 용이한 유지보수, 화재에 강한 안전 바닥재**

HTC SUPERFLOOR™
콘크리트 바닥재의 새로운 혁명!

한국환경위생협동조합 주식회사 제라콘
☎ 723-3090 010-5678-2586

냉동창고 콘크리트 폴리싱
영상미디어센터
종달리 카페
동아통문 물류센터

신화역사공원 YG

대형 상가매장

일정리 카페